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5.30(월) ~ 2022.6.3(금)

제공일시 2022 06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5.30(월) ~ 2022.6.3(금)

제공일시 2022 06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美 워싱턴 D.C. ‘무거운 차량’ 세금 더 낸다…車 중량세 부과

- 미국 워싱턴 D.C.가 환경을 위해 차량 무게에 따라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이른바 ‘중량세(fat tax)’ 제정 계획을 밝힘. 이 법안은 개인 고객들보다는 무거운 상용차, 트랙터 또는 고객운송용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함
- 문제는 이 법안이 무거운 리튬 이온 배터리팩을 탑재하는 전기차에도 적용된다는 것. 북미 인기 모델인 GMC 허머 EV의 경우, 배터리팩 무게만 1326kg에 달해 중량세가 본격 시행되면 의외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됨
- 이에 워싱턴 D.C.는 전기차와 전기바이크, 전기자전거 등은 첫 2년 동안 36달러(4만5000원)만 부과되고, 이후에는 무게에 따라 세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음

(지피코리아, 2022.5.30) 김미영 기자  
<http://www.gpkorea.com/news/2022/05/30/2022053008378>

### 2. EU, ‘에너지 대란 속’ 친환경 정책 가속화…재생 가능 자원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

-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사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의 도입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됨
- 친환경 싱크탱크 엠버와 청정공기연구센터는 27개의 EU 회원국 중 17개 국가가 2020년 이래로 재생 가능 자원의 사용을 늘려왔다고 밝힘
- EU 환경 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경우, 2030년이 되면 재생 가능 자원을 통한 전기 생산량이 6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조세일보, 2022.6.2) 황주영 기자  
<http://www.joselbo.com/news/2022/06/02/2022060205941.htm>

### 3. 미국, 원유·가스산업 ‘최악 온실가스’ 메탄 배출 잡는다

- 미국 정부가 원유·천연가스 생산·저장·유통과정에서 메탄가스 배출을 막기함에 따라, 메탄 배출 저감산업의 수혜가 예상됨
- 미 환경보호청(EPA)이 내년 중 확정할 규제 방안에 따르면, 미국 내 석유·천연가스 회사들은 유정·가스정, 저장탱크, 처리시설 등에서 메탄이 새는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고, 신형 메탄 누출 감시 장비를 갖춰야 함
- 이번 규제안이 시행되면 솔럼버거, 베이커휴스, 허니웰 등 대형 원유 서비스 업체들의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중소형 업체들로 구성된 미국독립석유사업자협회(IPAA)는 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규제안에 반대함

(연합뉴스, 2022.5.31) 구정모 기자  
<http://www.ynnews.com/article/001/0010205>

## 1. “에너지·기후 문제 해결책은 기술”...올해 하노버 메세 키워드는 ‘그린’

- 세계 최대 제조혁신 전시회인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하노버 메세 2022)’가 ‘산업 대전환’라는 대주제와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라는 세부 주제로 30일 개막
- 박람회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탈탄소화 ▲수소 및 연료전지 ▲인더스트리 4.0 ▲사이버 보안 등 일곱 가지 산업 트렌드를 제시했음**
-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60여 개국의 2500여 개 기업이 8000여 개 제품을 전시했으며 지멘스와 슈나이더일렉트릭,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스카와전기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현대로보틱스, LS일렉트릭 등 국내기업이 다수 참가함

(한경IT·과학, 2022.5.31) 안대규 기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5304681>

## 2. 영국·헝가리 에너지기업에 초과이윤세 부과

- 영국과 헝가리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기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영국 정부는 26일, 석유와 가스 업체에 25%의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고, 가계에는 150억 파운드(23조8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이러한 영국 정부의 조치는 에너지 요금의 폭등하여 가계 부담이 소득의 10% 이상까지 커졌기 때문이지만, 이런 조치로 인해 오히려 에너지 기업의 투자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매일경제, 2022.5.27) 김택식 기자  
<https://www.mk.co.kr/news/energy/2022/05/477810>

## 3. 프랑스, 인플레이션 연동 새로운 녹색 채권 발행

-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녹색 채권을 발행해 에너지 및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40억 유로(5조3000억원)의 녹색채권 발행을 발표함
- 프랑스 AFT에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CIB, 나탁시스, 소시에테제네랄 등이 이 거래에 참여하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생물다양성 보호, 오염 통제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로, 올해 녹색채권 지출 규모는 총 150억 유로(20조1400억원)가 될 것임
- 프랑스는 2017년 처음 70억 유로(9조4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한 최초의 국가로, 지금까지 녹색채권 발행액은 500억 유로(67조1200억원) 가까이 됨

(ESGToday, 2022.5.27) Mark Segal  
<https://www.esgtoday.com/france-issues-first-ever-inflation-linked-green-bond/>

## 4. 中 중앙은행 “금융권 기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확대”

- 이강 중국 인민은행(PBOC) 총재가 금융 부문에 대한 기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를 확대할 계획임
-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항공, 비철금속 및 석유화학 등 8개 산업의 기후 위험이 중국 내 은행들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은 앞서 파리 기후협정에 서명한 60개 이상의 선진국보다 10년 뒤인 2030년까지 최대 배출량을 찍은 뒤 2060년까지 순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아시아경제, 2022.6.2) 김현정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6020148177921>

## 1. '탈원전 뒤집기' 시작... '에너지기본법' 만든다

### -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함

(한경경제, 2022.5.31) 이지훈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3103>

-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법 위원회는 공급·인프라·에너지 효율·수요 예측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각 분과별로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중임. 이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원전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4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24년 만들어져야 하지만 정부는 원전 복원을 서두르기 위해 올해로 앞당겨 수립할 계획임
- 4차 계획에 원전 비중이 35% 이상으로 제시될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하므로, 업계는 윤 정부가 원전 부활을 선언한 만큼,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비중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 제조기업 10곳 중 9곳 “규제 탓에...탄소중립 어렵다”

###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92.6%는 탄소중립 기업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애로가 ‘있었다’고 응답

(이데일리, 2022.5.29) 이준기 기자  
<https://news.spo.com/infocenter/newsPage.do?l=000238343&star=20220529>

- A사의 경우 CCUS 기술을 개발했지만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폐기물로 분류돼 인허가 취득이 필요한데다 재활용 용도도 일부 화학제품으로 제한돼 허가요건 갖추는데만 1~2년이 소요된다고 함
- 대한상의의 조사결과, 애로사항 유형별로는 ‘복잡, 까다로운 행정절차’(51.9%), ‘법제도 미비’(20.6%)가 꼽혔음.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2.1%)’가 꼽혔는데,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 확대와 해외 온실가스배출권의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 확대가 요구

## 3. 10대 그룹 절반, ‘에너지’에 미래 걸었다...250조 투자

### - 국내 1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앞으로 5년간 250조원에 이르는 금액을 ‘에너지’ 분야에 쏟을 것으로 예상됨

(이데일리, 2022.5.27) 함정선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do?newsID=2178366211244&newsCntr=2178366211244](https://www.edaily.co.kr/news/read.do?newsID=2178366211244&newsCntr=2178366211244&newsCntr=2178366211244)

- 직·간접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곳은 SK와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이 있음
- 이들이 투입하는 금액은 5년간 250조원에 이르고, 분야는 수소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부터 이차전지(배터리)와 배터리 소재까지 다양함

## 4. “납품업체 탄소배출량까지...” ESG 공시 부담에 떠는 기업들

### - 국내 기업들이 연말 확정을 앞둔 국제회계기준(IFRS)의 ESG 공시기준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냄

(머니투데이, 2022.6.1) 오진영 기자  
<https://www.money.com/infocenter/newsPage.do?l=000238343&star=2022060103>

### - 국내 기업들은 IFRS의 ESG 기준 초안이 가치사슬 전체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온실가스 배출 공시 규제가 과도하여 국내 현실 고려 없이 도입할 경우, 공시 기준이 성장 동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경목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ESG 국제 기준을 따라야겠지만, 예상보다 부담이 커서 중국 등 ESG 비용 소비가 적은 국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과도한 비용이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 1. BNEF “세계 전기차 판매량, 2025년까지 3배 넘게 급증”

-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가 1일(현지시간) ‘2022년 전기차 전망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까지 현재 대비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2025년에 세계에서 새로 판매되는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이르게 됨**
- 이 보고서는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영구적인 하향 추이를 보일 것이며, 새로운 내연기관차 판매는 늦어도 2035년까지 종료되고 엄격한 연비 및 배터리 재활용 표준이 마련되기 위해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에너지경제, 2022.6.2) 박성준 기자  
<https://www.etnews.com/view/20220602000005>

### 2. 글로벌 해상풍력시장,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유럽 중심으로 들쭉

- 글로벌 해상풍력시장이 고속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유진투자증권의 ‘2022 하반기 산업전망-Green Industry: 풍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해상풍력시장이 2022년 5.5GW에서 2030년 34.3GW로 확장해 연평균 25.7% 성장할 것으로 관측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 자체 에너지 확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원인임

(산업일보, 2022.5.30) 김원정 기자  
<http://www.industrytoday.com/news/20220530000007>

### 3. 화학산업 탄소중립 이루기 위한 ‘어벤져스’ 뜬다

- **탄소중립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화학연구원과 민간 기업 연구소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화학기술 연구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함**
- ▲LG화학 ▲화성축매 ▲포스코 ▲에코프로에이치엔 ▲SK이노베이션 등 19개 기업연구소가 참여함.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과 정책 로드맵 수립, 국내외 연구기관 네트워킹 활성화를 해나갈 예정
- 세부적으로는 ▲석유화학 친환경 공정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페플라스틱 리파이너리 ▲바이오 리파이너리 ▲부생가스 활용 ▲화학산업 디지털 전환 ▲기타 탄소중립 화학기술 소재·공정 기술 등에서 협력을 확대함

(이데일리, 2022.5.31) 강민구 기자  
<https://www.newsen.com/article/2022053100000113>

### 4. 현대차까지 뛰어든 ‘약 배달’ 사업…미래 먹거리로 ‘군침’

- **세계적으로 의약품 배송에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새로운 유통질서가 자리잡혀 가고 있음**
- 약 배달 사업은 미국에서 워싱턴을 거점으로 하는 캐리Rx와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나우Rx 등이 초창기 시장 이끌고 있음
- 현대자동차그룹은 나우Rx와 제휴해 혁신적인 처방약 배송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올해 말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이용한 처방 약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메디소버지뉴스, 2022.6.2) 박찬영 기자  
<http://www.medsovernews.com/news/article/view.html?drop=152>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5.30(월) ~ 2022.6.3(금)

제공일시 2022 06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올해 다보스포럼의 키워드는 ‘환경’과 ‘공동 대응’

- 전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현안을 점검하고 변화와 혁신을 조명하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됐다가 2년만에 대면으로 다시 열린 WEF에는 50여명의 국가 수반을 비롯해 기업인, 학자, 시민사회 인사 등 2500여명이 참석
- WEF가 개최되지 못했던 지난 2년간, 전세계는 해결되지 않는 전염병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리스크 증가, 시장 경제 약화 등 수많은 도전과제에 직면. 때문에 이번 WEF에서는 명쾌한 솔루션이나 방향성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개최 전부터 제기. 하지만 클라우드 슈밥 WEF 회장은 **지난 2년간 논의되지 못한 이슈를 짚고 넘어가 더 큰 위기를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WEF 설립 이래 가장 중요한 연례회의”라고 강조**
- **올해 WEF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이 주목했던 주제는 ‘환경’**.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기후변화’는 WEF의 주요 의제로 부상해왔지만, 올해는 270개 패널토론 중 90개 이상이 기후위기에 관련돼 관심도가 더 높아짐
- 그중에서도 **화제가 된 소식은 ‘퍼스트무버 연합(First Movers Coalition, 선도그룹연합)\*’의 확장**. WEF에서 퍼스트무버 연합은 회원사들의 공동 협력으로 탄소 제거 기술에 1억 달러(1254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힘. 이번 투자 자금은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 내 탄소 제거 기술(CDR) 활용도를 높이고,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 더불어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신규 가입한 MS, 알파벳 등의 기업도 4억달러(5018억원)를 투자해 탄소 제거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 한편, 올해 다보스포럼 대통령 특사로 참여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클라우드 슈밥 WEF 회장으로부터 퍼스트무버 연합의 한국 정부와 기업 참여를 요청받기도 함. 이에 나 특사는 "(한국의) 신(新) 정부는 가치기반 외교원칙에 입각해 녹색기술 등 글로벌 공공재 생산·공급에 기여하며 국제협력을 선도해가겠다"고 말하며,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또한, WEF에 모인 글로벌 리더들은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등으로 흔들리는 공급망 위기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음. 특히, **공급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 협력과 청정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임**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비용에만 기초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제는 공급의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함께 봐야할 때가 왔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 기후변화 대응과 공급망 위기 완화 등은 기업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 이에 올해 WEF에서는 모든 산업계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보다 강조. 이에 따라 올해 WEF 폐막에서 선정된 주제도 ‘함께 일하기, 신뢰 회복’. 따라서 글로벌 이슈와 ESG 개선을 위해 산업계의 공동 대응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

(WEF, 2022.5.25)

<https://www.weforum.org/impact/first-movers-coalition-building-the-climate-crisis/>

(New York Times, 2022.5.27) Andrew Ross Sorkin의  
<https://www.nytimes.com/2022/05/27/business/leadersbook/after-world-economic-forum-cgdp-promotions.html>

(중앙일보, 2022.5.26) 김경희 기자  
<http://news.koreadaily.com/2022/05/26/society/politics/20220526ESG.html>

\* 지난해 11월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미국 국무부와 WEF가 출범시킨 것으로, 철강, 알루미늄, 해운, 트럭운송, 항공 등 탄소 감축이 까다로운 8개 대표 산업들이 청정기술에 대한 초기 투자를 지원하고 탄소 제거 솔루션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 존 케리 기후특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 연합에 참여하는 산업의 총 시장 가치는 8조 5000억 달러(1663조 2500억원) 이상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 큼